

전남도-부산시 '남해안 탄성소재벨트' 공동 추진

2042억 들여 개발 나서

하반기 예타 조사 신청

탄성소재 4차 산업 핵심

전남도와 부산시가 남해안 탄성소재벨트를 공동 추진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라남도에 의존하는 탄성소재기술의 자립화를 위해 전남도와 부산시가 손잡고 '남해안 탄성소재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국비 1262억원을 포함해 사업비는 2042억원 규모다. 양 시·도는 하반기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선정되도록 신청할 방침이다.

합성고무 생산설비가 밀집된 전남과 신발·고무벨트 산업이 발달한 부산지역의 연계로 남해안 지역을 국가 신성장산업의 탄성소재 육성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6일 '첨단화학산업 발전 전략'에 이 사업을 발표하는 등 적극 추진 의지를 밝혔다.

탄성소재는 고무와 같이 탄성을 갖는 재료로 내열성·내구성이 뛰어난 특수탄성소재, 열을 가해 마음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열가소성 탄성소재, 기능성을 부여한 기능성 탄성소재 등으로 분류된다. 수송기계, 전기·전자, 항공우주 분야에서 최종 품질 수준을 판단하는 핵심 소재로 꼽힌다.

특히 4차 산업의 핵심소재로 앞으로 수요의 폭발적 증대가 예상되지만, 국내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으로 정체돼 전라남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병선 전남도 지역경제과장은 "탄성소재 산업의 기술 및 자립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남도와 부산시가 탄성소재개발 및 기반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현재 순천에 조성 중인 226억원 규모의 고성능 첨단고무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과 연계한 지역 강소기업 육성 및 우수산단 고무소재산업 고도화를 통해 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민주당 당원명부 외부 유출 사실로

광주시당, 전임 조직국장 당 윤리심판위 회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당원 명부 외부 유출이 사실로 드러났다. 전임 당직자가 당원명부를 당사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용한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측이 당원명부를 이용해 신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의혹을 해소할 만한 결과는 내놓지 못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8일 '당원명부 유출의혹 진상조사' 브리핑을 통해 전임 조직국장 A씨에 대한 조사결과 당원관리용 USB를 근무 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활용한 흔적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A씨로부터 제출받은 USB 복구작업에서 공식 근무공간이 아닌 곳에서 명부와 관련된 새로운 파일이 생성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광주시당 조직국장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당원명부 USB를 외부에서 사용한 흔적을 찾기는 했지만 의혹을 밝힐 핵심 열쇠인 'A씨가 어디에서 USB를 사용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당은 A씨의 부적절 행위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

신년문자를 발송한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광주시당은 또, 신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B씨에게 문자 발송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B씨 측은 당 차원의 조사가 절차적 정당성, 형평성, 기밀성이 보장되는 상황을 기다려 그 시점에 수신자명단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경찰과 검찰은 당원명부 유출자에 대한 소환을 검토하는 등 이 사건의 배후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여성인권보호관 채용

광주시는 여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등 여성 인권침해 상담·조사를 전담할 여성인권보호관을 채용한다.

8일 시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이 맡고 있는 여성인권보호관을 성희롱 고충상담자를 관련 분야에서 장기간 활동하며 많은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임용해 성차별,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뿌리 뽑는 등 단호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여성인권보호관은 인권읍부즈맨실에 소속되며, 광주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성차별, 성희롱 등의 고충상담을 전담하게 된다.

이는 최근 직장 여성들의 직장 내 성폭행 고발이 잇따르며, SNS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me too 운동'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또 그동안 여성청소년가정폭력관실, 감사위원회 등에 성희롱 관련 상담과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창구를 마련하고 남녀 성희롱 고충상담자를 지정해 운영해 온 시는 인권읍부즈맨실로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전남도는 8일 목포역과 주변 상가를 순회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확산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하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했다.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박홍을 목포시장, 권욱 도의회 부의장, 명록 이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장, 김광근 목포세무서장 등이 목포역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여수산단에 국내 첫 이산화탄소 활용기술센터

2021년까지 219억 들여 건립

여수산단에 국내 첫 이산화탄소 활용기술센터가 건립된다.

전남도는 8일 여수국가산단 삼동지구에서 국내 최초로 이산화탄소 전환·활용기술 지원센터 기공식을 열었다.

이산화탄소 전환·활용기술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자원 선순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주도형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이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2021년까지 국비 100억원 등 모두 219억원을 들여 구축할 예정이다. 센터는 8643㎡ 부지에 연면적 3343㎡,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이며, 분석 장비실·성능평가실·기밀지원실 등을 갖춘다. 센터는 이산화탄소 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위

한 시험·인증 기반을 구축하고 이산화탄소 전환·활용(CCU) 사업 활성화 등에 나선다.

CCU는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해 고부가가치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화학제품 생산, 재생연료 전환, 친환경 고분자 생산 등에 활용된다.

전남에는 CCU 기술 활용이 가능한 석유화학, 철강, 발전 등 관련 업체가 밀집해 사업 효과와 경제성이 기대된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김신남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이산화탄소 전환·활용기술 지원센터가 정부의 탄소자원화 전략사업과 연계해 국내 CCU산업의 거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광영 광양만권경제구역청장 후보 낙마 ... 재공모

전남도·경남도, 내달 9일까지 신청

정광영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후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임용에서 탈락했다. 전남도는 경남도와 협의해 재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는 8일 “정 후보가 검증과정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남 통보해와 왔다. 구체적 사항은 비공개여서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해 12월28일 청장선발심사위원회에서 11명 중 최종 후보로 낙점됐다.

이번 부적합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코트라(KOTRA) 중국지역본부장인 정 후보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방중 과정에서 빚어진 불미스러운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코트라는 지난해 12월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장에서 발생한 우리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해 행사 주관기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는 경상남도도와 공동으로 청장 재공모에 나선다.

오는 19일 채용공고를 내고 다음달 9일까지 원서신청을 받는다. 다음달 16일 선발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3월20일께 최종 후보를 산자부에 임용 요청할 예정이다.

권오봉 전 청장이 지난해 10월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임한 뒤 6개월여 청장 공백이 불가피했다. 강효석 행정개발본부장이 청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권세도 조선훈 초빙교수 여수시장 출마 선언

권세도(58·사진) 조선훈 초빙교수가 지난 7일 6·13지방선거 여수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권 교수는 이날 여수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명령과 시대적 요구를 담아 엄중한 마음으로 시민과 마음이 통하는 첫 번째 시장이 되고자 한다”며 “사회권력과 통하는 시장이 아닌 시민과 마음이 통하는 ‘맘통 여수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 교수는 여수고, 조선훈 법학과를 졸업하고 조선훈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해남경찰서장, 광주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영등포경찰서장,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을 지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정영덕 전남도의원 무안군수 출마 선언

정영덕 전남도의원(50·무안)·더불어민주당·사진)이 8일 6·13지방선거 무안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청 이전, 무안국제공항 개항, 서해안고속도로와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개통, KTX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확정, 임성~보성간 철도 연결 등으로 무안군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지만 날개없이 추락했다”며 “국민들의 허탈감과 뼈아픈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전남도청에서 도시계획전문위원으로 20년간 근무한 정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건설소방위 부위원장, 안전행정환경위원회, 명품도시연구회장, 광주 군시설이전반대특별위원회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만 빌려주세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이사업역 | 전남대 지질학과 졸, 방송대 중어중문학과 졸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73-증-83333호

100세 시대 무릎 건강!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무릎의 통증의 시작은 무릎 내측의 관절 연골판 손상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관절 연골 손상이 되어 안쪽이 닳아지면 간격이 줄어들면서 오다리 변형이 됩니다. 결국, 오다리 변형을 일차적으로 수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심한 검사! 정밀한 진단! 가족같은!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쌍암공원앞위치!